

	<p><b>보도참고자료</b> 2020. 11. 30.(월) 배포</p>	<p>힘내라 대한민국</p>
---	--	-----------------

**교육부와 소방청, 2021 수능시험 지원 협의 결과**  
**- 수험생 긴급이송 등 비상 협력체제 마련·운영 -**

- 교육부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)와 소방청(청장 신열우)은 11월 30일(월) 서울종합방재센터에서 안전한 수능시험 시행 지원을 위한 협의회를 열고 아래의 사항에 합의하였다.
  - 교육부와 소방청은 수능시험 전날인 12월 2일(화)부터 수능시험 종료 이후까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“공동 핫라인을 구축”하여 수험생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하였다.
  - 특히 소방청은 수험생 이송지원 및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“119특별상황실”을 12월 2일(화)부터 12월 3일(수) 수능시험 종료 시까지 운영한다.
    - 코로나19로 자가 격리 중인 수험생, 이동이 어려운 수험생 등을 별도시험장까지 전담구급대 등으로 긴급 이동 지원할 예정이며,
    - 수능 시험일에 시험장 안전 관리를 위해 시도교육청에서 요청하는 시험장에 안전관리관 2명을 수능시험장별로 배치하고,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19 구급차를 구비해두고, 전 직원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.
-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이 수능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긴급 이송 체계를 잘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, 수능 전날부터 시험 종료 시까지 생길 수 있는 긴급 상황에

대해 빈틈없이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.

- 신열우 소방청장은 19개 소방본부가 시도교육청 상황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긴급 이송 등이 필요한 수험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